

스스로의 믿음·원력에 '낮은 점수' 쥐
본지, 불교대 재학생 600명 대상 설문조사

관련기사A10면
불교대학 재학생 중 절반이 상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절반 가까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확신치 못하고 있었으며, 10명중 6명은 현재 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불자들이 비교적 불교공부에 열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불자들의 믿음과 원력 정도는 이보다 더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본지가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전국 25곳의 불교대학 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은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스스로의 믿음에 점수를 주다면'이라는 질문에 '40~50점(37.3%, 224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같은 평가는 믿음과 수행 일치도에 그대도 확인됐다. '자신의 믿음과 수행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일치하지 않은 편이다(40.5%, 243명)'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응답자 34.0%(204명)는 '본래 부처'를 믿지 않는 편이었다. 아예 '안 믿는다'라는 대답도 12.0%(72명)나 나왔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교리적 수행적 교육 방법이 모색돼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현재 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35.8%(215명)에 불과했다.
설문 교차분석 결과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20~30대' 젊은층 '남자'들의 믿음이 약했다. 이들은 믿음과 수행 일치도 또한 낮았다.
한편 불교를 믿는 지 오래될 수록 '부처님 가피력'과 '인과 및 윤회'를 믿는 지수가 낮아지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남동우 기자

재가신행 새 길 찾자

교리·수행 중심에서 '사회화'로 초점 이동 해야
우리는선우 공개토론... "실천하는 삶 교육 필요"

"이렇듯만 외치는 시대는 지났다. 언제까지 공안참구에만 빠져있을 것인가. 가족문제, 직장문제, 사회문제가 화두가 돼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수행의 의미는 8만4천 모든 번뇌를 화두로 삼는데 있다."

뜻있는 재가불자들이 변화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불교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자기반성'이다.

10월 11일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 주최로 열린 '재가불자 신행의 과거·현재·미래' 공개토론회는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신행 변화'를 외치고 나섰다. 여기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한 재가단체의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현재의 재가불자 위상이나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비춰볼 때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은 '신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과거의 신행이 기복에 치우쳐 있었고, 현재의 신행이 교리와 수행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미래의 신행은 '사회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자로 참석한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 박광서 참여불교재단 이사장,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 윤세원 길벗아카데미 설립 준비위원장, 이영철 NGO 미래경영 연구소장 등 재가단체 리더들은 이 구동성으로 "재가불자들은 이제 스스로의 신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자기 수행'을 넘어선 '사회 참여'를 제시했다. 이는 곧 신행 패러다임이 '자기'에서 '사회'로 전환돼야 함을 의미한다.

김재영 법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팎의 수행'을 제기했다. 참선과 같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안으로의 수행'이 적극적인 사회참여

를 의미하는 '밖으로의 수행'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용 이사장도 '사회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자유 평등 생명 환경 평화 환경 등 우리사회의 공통가치를 지키는 불자로 거듭나야 하며, 연기적이고 사회적인 삶이 불자다운 삶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박광서 참여불교재단 이사장 대표는 "실천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박광서 이사장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가 양성돼야 한다. 그 인재들이 불자들의 의식을 바꿔놓아야 한다"며 재가불자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

"주부로서, 상인(商人)으로서의 불교적 삶을 배워본 사람이 있는가"고 청중에게 반문한 성태용 이사장은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절에서만 생각하고 깨끗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중성을 벗어나야 하며, 이것이 바람직한 신행이요 사회화다"라고 역설했다.

재가불자들의 삶은 현실이다. 현실의 궁극은 행복이고, 재가불자들이 신행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 더 있는 사족(蛇足)같은 교육이 아닌 완성을 향한 화룡점정(畫龍點睛)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재가불자 신행은 사회화함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무엇을 나누고, 무엇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복(作福)의 신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ghan@buddhapia.com



우리는선우의 '재가불자 신행의 과거·현재·미래'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로운 신행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박재원 기자



현대불교 창간 12주년...특집 48면 발행

'지구촌 곳곳에서 현대불교를 읽는다.' '현대불교'는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기다려지는 도반같은 신문이다. 한미음선원 독립지원장 혜진 스님(오른쪽 두번째)이 10월 12일 '현대불교'에 실린 한국불교소식을 현지 독립불자들에게 번역해 읽어주고 있다.

A	B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지상중계 4면	열두살 '현대불교'가 스님께 띄우는 편지 1면
'봉사제일' 심기남 보살의 하루 7면	
특집 '믿음과 원력'	특집 '도심 속 불교문화'
성열 스님이 말하는 믿음과 원력 9면	도심공간에 불교문화 심기 3면
나의 '믿음·원력' 몇 점? 10면	도심문화 이끄는 스님들 4면
믿음이 있는 삶 원력이 있는 삶 11면	헌눈에 '속' 조계사 불교문화클러스터 5면
내가 개종한 이유 12면	지하철역 주변의 불교문화 6면
개종-포교보다 급한 숙제 13면	
역사속 원력보살-균여 스님 15면	기획 청평열차 타고 티베트 가다 10~11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사찰 음식 16면
특집 '사찰경제 '위기시대' 왔다'	10대 강백 초청 불교강연대법회
사찰경제 양극화 실태와 극복 방안 17면	해남 스님의 '화엄경' 12~13면
좌담 사찰경영 무엇을 준비... 18~19면	

미관리 사설사담 말소

조계종, 244곳 대상

1962년 통합종단 이후 등록된 조계종 사설사담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종단 관리가 미치지 않은 244개 사찰에 대해 등록 말소가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부는 등록된 뒤 90년 이전까지 주지 임명이나 분담금 납부를 이

행하지 않는 사찰, 종단평의 재산이 전혀 없는 사찰 등을 통합종단 이후 처음으로 일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총무부는 등록말소 대상 사찰의 재산현황 파악을 완료하고, 최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교구본사 주지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해당 사찰에 차 차례 통보 우편을 발송한 뒤, 이의 신청이 없으면 11월 총무부의 결의를 통해 등록말소를 최종 확정한다. (02)2011-1701 조용수 기자

경건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불교강연대법회'

지안 스님
열반경/10월 21일
불교사 설립전, 031)527-1951-3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진품차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불조(佛祖)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빛으로 온 누리를 밝히면서

언제나 국민 그리고 불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종 정 법 전
총무원장 지 관

원로회의의장
중앙총회의의장
호 계 원 장

종 산
법 등
월 서

교육원장 청 화
포교원장 직무대행 일 관

